

‘화·력·폭·발’...‘독수리 등지’서 스윙

KIA, 한화 원정 3연전 싹쓸이...4연승으로 공동 5위 도약

한준수 홈런 포함 4안타·카스트로 3안타 장단 13안타 폭발 데일 12경기 연속 안타...올려, 5이닝 2실점 ‘다승 공동선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쓸어담으며 4연승을 질주했다.

KIA는 12일 대전 한화생명 불꽃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공동 5위로 올라서며 두 계단 상승했다.

승부는 타선의 집중력에서 갈렸다.

장단 13안타가 터졌다. 한준수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5타수 4안타 3타점(1홈런). 이를 연속 멀티히트다. 중심타선에서 카스트로가 3안타로 공격을 이끌었고, 김도영과 나성범은 각각 1타점을 보였다. 리드오프 데일은 지난달 29일 SS G전 데뷔 이후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KBO 외국인 타자 최장 타이 기록이다.

선발 올러도 3경기 연속 호투를 이어갔다. 5이닝 5피안타 4사사구 7탈삼진 2실점. 시즌 3승째로 다승 공동 선두를 달랐다.

볼펜도 제 몫을 했다. 한재승(홀드)과 이태양

이 무실점으로 막았고, 흥건희는 1실점으로 버렸다. 9회 조상우는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평균자책점을 3점대로 낮췄다.

출발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1회 데일의 안타와 도루로 만든 2사 3루. 김도영이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에 1점을 내준 KIA는 4회 카스트로의 2루타, 나성범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이어 한준수의 안타로 흐름을 이었고, 박재현의 적시타와 데일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지며 박이닝이 완성됐다.

5회 1실점 뒤 6회 다시 달아났다. 1사 2루에서 나온 내야 땅볼 때 상대 수비가 흔들렸다. 포구와 송구 실책이 이어졌고, 그 사이 한준수가 홈을 파고들었다.

책기는 7회였다.

2사 이후 집중력이 빛났다. 카스트로의 2루타와 나성범의 볼넷으로 만든 기회에서 한준수의 2루타, 김규성의 안타로 3점을 더했다. 사실상 승



12일 열린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각각 3안타와 4안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한 카스트로(왼쪽)와 한준수가 베이스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기를 잡은 득점이었다. 9회에는 한준수의 솔로포까지 터졌다. 시즌 2호 아치였다. 승부에 여유를 더하는 한 방이었

다. 마무리는 조상우였다. 9회말 세 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우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날 경기에서도 KIA는 8회에만 5점을 몰아

치며 역전승을 일궜다. 김선빈과 김도영, 한준수로 이어진 타선이 경기를 뒤집었다. /주홍철 기자

안세영, 亞선수권 제패...그랜드슬램 달성

왕즈이 꺾고 전영오픈 패배 설욕 한국 여자 배드민턴 최초 대기록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절대 강자’ 안세영(삼성생명)이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의 대업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2일 중국 난닝 올림픽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왕즈이(중국)를 2-1(21-12 17-21 21-18)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췄다.

배드민턴 종목에 그랜드슬램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세영은 여러 차례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그랜드슬램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목표로 공표해왔다.

이미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게임(이상 2023년), 올림픽(2024년) 3개 메이저 대회를 휩쓸고도 유독 아시아선수권 정상과 인연이 없었던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마침내 개인 커리어의 마지막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웠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연합뉴스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 4개 대회에서 동일 종목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한국 선수는 안세영을 포함해 단 4명뿐이다.



12일 열린 2026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왕즈이를 꺾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안세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표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980-1990년대 초반을 풍미한 박주봉(61)과 김문수(62),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활약한 김동문(50) 등 모두 전설적인 복식 선수들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안세영의 이번 제패는 김동문이 기록을 달성한 1999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나온 쾌거다.

특히 앞선 선배들이 모두 남자 복식 선수였다는 점에서, 안세영은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단식 그랜드슬램이자, 여성 선수로서도 최초의 기록을 작성하게 됐다.

안세영과 함께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남자복식 ‘무적의 듀오’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도 아시아 정상에 등극했다. 아울러 세계랭킹 147위인 혼합복식의 김재현(요넥스)-장하정(인천국제공항) 조도 우승이라는 깜짝 성과를 냈다. /연합뉴스



제68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조선대 검도부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검도회 제공>

조선대 검도 이인호·이정환 춘계대학연맹전 개인전 우승

조선대 검도부 이인호와 이정환이 ‘제68회 춘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개인전 정상을 차지했다.

이인호는 최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인전 1부 고학년부에서 예선부터 본선까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선전을 펼쳤다.

준결승에서 안형빈(영산대)을 2대0으로 꺾은 이인호는 결승에서 이민규(경운대)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우승했다. 이인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첫 개인전 입상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1부 저학년부에 출전한 이정환은 투지 넘치는 경기력을 앞세워 정상에 올랐다. 이정환은

준결승에서 김도원(대구대)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동원경(충북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대학 입학 후 첫 출전 대회에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단체전에서 탄탄한 팀워크로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강호 성균관대에게 1(1)대1(2)에 포인트 한 개 차이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오길현 조선대 검도부 감독은 “선수들이 높은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준 값진 대회였다”며 “단체전의 아쉬움은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희중 기자

‘슈퍼 루키’ 김민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iM금융오픈 제패...통산 3승째

‘슈퍼 루키’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김민솔은 12일 열린 KLPGA 투어 iM금융오픈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인더파 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타를 기록한 김민솔은 공동 2위 선수들을 4타 차로 넉넉하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8월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에서 첫 승을 따낸 김민솔은 작년 10월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이후 6개월 만에 통산 세 번째 승리를 거뒀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8천만원이다.

2006년생 김민솔은 작년에 2승을 거뒀으나 올해 신인 자격으로 투어를 뛰고 있다.

이 대회 전까지 신인상 포인트 3위였던 김민솔은 이번 우승으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KLPGA 투어 iM금융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김민솔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국가대표 출신 장타자인 김민솔은 지난 시즌 2부 투어에서 시작했으며 작년 8월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에는 추천 선수로 나가 1위를 차지했다.

김민솔은 이번 대회 2라운드만 공동 선두로 마쳤고, 1라운드와 3-4라운드는 모두 단독 1위로 끝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골 침묵’ 광주, 3연패 수렁

흥부천FC1995戰 0대1 패배

프로축구 광주FC가 안방에서 역습 한방에 무너지며 3연패에 빠졌다.

광주는 지난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FC1995와 K리그1 7라운드 홈 경기에서 1-0로 패했다.

이정규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하면서 김광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은 광주는 이날 슈팅 8개(유효슈팅 4개)를 기록하며 부천(슈팅 5개 유효슈팅 2개)을 앞세우고도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가 경기 시작 4분 만에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 안혁주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다.

경기를 주도하던 광주에 악재가 생겼다. 유재호가 전반 22분 발목 통증으로 교체 사인

보였고, 주세종으로 교체됐다.

광주는 계속 부천 골문을 두들겼다.

신창무가 전반 28분 역습 기회에서 문민서의 패스를 받아 돌파하며 때린 왼발 슈팅은 살짝 빗나갔다. 이어 전반 36분 우측면에서 온 신창무의 크로스를 문민서가 노마크 상태에서 발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빗맞았다.

후반에도 광주의 공세는 멈출 줄 몰랐다. 정지훈이 후반 3분 왼 측면을 돌파하며 때린 왼발 감아차기는 골문을 벗어났다.

공세를 이어가던 광주가 후반 9분 역습 한방에 선제 실점했다. 몬타노가 이인기와 경합에서 이겨낸 후 헤더로 전방에 패스했고, 갈레고 가 빠르게 쇄도하면서 왼발 슈팅했다. 노희동 손에 맞아 막는 듯 했지만, 실점을 막지 못했다.

반격에 나선 광주가 후반 23분 최경록, 29분 김윤호와 권성윤을 연이어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신창무와 문민서. <광주FC 제공>

하지만 후반 35분 권성윤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은 빗나갔고, 김윤호가 후반 40분 우측에서 온 최경록의 크로스를 헤더로 이었으나 골키퍼 김형근 선방에 막혔다.

동점골 희망으로 총력전을 펼친 광주는 추가 시간 최경록의 헤더마저 빗나가며 어렵게 0대1 패배로 마쳤다. /박희중 기자